5천만원 이내 정기예금 제2금융권 노려라

초저금리시대 내 돈 지키기 재테크 전략은

예금자 보호법 적용 받는 저축은·신협 등 고객 몰려

우량단기사채·기업어음 등 중수익·중위험 상품 주목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예금금리가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목돈을 마련하려는 금융소비자들의 고민이 더 깊어지게 됐다.

은행 예금금리가 연 2%대 초반으로 내려앉다 보니 조금이라도 금리를 높게 주는 저축은행 예금 상품에는 안전자산을 찾는 소비자들의 가입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정기예금 금리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중위험·중수익 상품을 노리는 것이 좋다는 게 은행 프라이빗 뱅커(PB)들의 조언이다.

주식시장은 대외 리스크 등으로 불안 요인이 있지만 가치주 위주로 투자를 권하는 목소리도 높다.

◇안정성 원한다면 미워도 정기예금…저축은행 문의 급증=위험성 없이 안전한 상품만을 찾으려는 금융소비자는 저금리 기조에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인하 이후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더 낮출 것으로 전망되면서 조만간 연 2% 초중반대(1년 만기 기준)의 금리 상품도 귀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은행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 예금자보호를 적용받는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 제2금융권을 찾는 발길도 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최근 저금리 기조로 시중 은행권의 1% 금리대의 정기예금 상품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이 어느 정도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신협의 경우 명목 예금금리는 2.91%이지만 이자소득세 비과세 효과를 고려하면 실효금리가 3.3% 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2% 초반대로 낮아지면서 비슷한 수준의 금리를 주는 수시입출금식 통장을 찾는 금융소비자도 늘고 있다.

한국씨티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산업은행 등 일부 은행은 2%대 금리를 적용하는 수시입출금식 통장 상품 출시해 호응을 얻고 있다.

◇중수익·중위험 투자상품…ELS·해외투자펀드=저금리 기조 속에서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재테크 전략은 '중위험·중수익' 추구이다.

대개 5%대 이상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상품이 많지만 안정적이라고 여겨진다면 3% 중반대라도 자금이 몰린다.

우량 전자단기사채(ABSTB), 안정형 주가연계증권(ELS), 해외 우량 채권형 펀드, 기업어음(CP), 신종자본증권 중에서 중수익을 목표로 하는 안정형 상품 등이 그 예다.

ELS의 경우 전문가들은 개별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한 종목형 ELS보다는 주가지수를 기반으로 한 지수형 ELS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

국민은행 목동PB센터 공성율 팀장은 "ELS의 경우 중도 환매할 경우 원금손실을 감수해야 하므로 여윳돈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업어음은 동양사태 이후로 이미지가 실추되기도 했지만 시장에는 여전히 우량한 매물이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

기업어음 3개월, 6개월물은 연 3~4%의 수익률을 보장하므로 잘 선택하면 짭짤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단, 원금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신용등급 A2 이상의 우량한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브라질 국채 투자에 이어 최근에는 유럽 하이일드 펀드도 인기를 끌고 있다.

워낙 상품이 다양하고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금융상품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는 투자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이 필요하다. /연합뉴스

은행 예금금리가 연 2%대 초반을 기록하면서 금리를 높게 주는 은행 예금상품에 안전자산을 찾는 소비자들의 가입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광주의 한 은행에서 고객이 대출 상담을 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금리 갈아 타려면 중도상환수수료 등 꼼꼼히 따져야

신규대출자는 고정금리 유리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로 은행 대출금리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은행 대출창구에는 고정금리대출에서 변동금리대출로 갈아타려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무작정 갈아탔다간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어서 꼼꼼히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추기로 한 이후 은행 지점 대출창구에는 대출 갈아타기 문의가 평소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한 시중은행 대출 관계자는 "대환 문의는 주로 최초 대출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났거나 3년을 앞둔 고정금리대출자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올해 6월 기준 488조 9000억원인데 이 중 25.7%인 125조원이 고정금리대출 잔액으로 추산된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이자가 0.25% 포인트 하락할 경우 고정금리 대출자들은 이자부문에서 연간 3000억원의 혜택에서 빗겨가게 된다. 반면 변동금리 가계대출잔액 355조 5000억원은 연간 9000억원의 이자를 절약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은 가파르게 증가했다. 2010년 5.1%에 불과했던 것이 올해 6월 말에는 25.7%까지 껑충 뛰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안정화의 일환으로 2011년 6월 '6·29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시중은행에 고정금리 가계대출을 적극 권장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고정금리대출의 확대 추세와 동시에 시중금리가 급격히 하락했다는 점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신규취급액 기준 2010년 5.0%에서 올해 6월 말 3.58%로 1.42% 포인트나 내려갔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이 시장 상황과 맞지 않는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존 고정금리대출자들이 대출 갈아타기를 시도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중도환매수수료(0.5~1.5%)가 발생하는 3년 이하 대출자들은 변동금리로 갈아타면서 향후 1년간 절감

하는 금리 차액이 중도해지수수료보다 높다면 대출을 갈아타는 편이 낫다고 본다.

당연히 신규 대출자들은 고정금리가 유리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차이가 0.3~0.5% 포인트로 역대 최저 수준인 만큼 신규 대출자들은 고정금리를 선택하라"고 권장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주간 증시 포커스

앨런의장 잭슨홀 연설 국내 주식시장 최대변수 조정땐 적극 매수를

이번 주 국내증시는 국내에 특별한 이슈가 없는 가운데 지난주와 대외적인 이슈에 지속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엘런의장의 발언들을 감안하면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할 가능성은 작아 보이지만, 최근 스탠리피셔 FOMC 부의장이 미국의 구조적 침체가능성을 경고하는 등 미국의 경기회복과 금리인상 시기에 대해 글로벌 금융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미국의 금리인상 시기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지수가 조정을 보였던 지난주 후반에도 외국인 매수세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은 외국인 수급에 민감한 국내증시에 긍정적인 부분이다.

한편 금리인하 기대감과 함께 일시적으로 상승했던 원·달러 환율이 다시 1020선 아래로 하락하면서 원화 강세 기조가 재차 강화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국내 수출주에 대한 투자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의 삼성전자 주가도 2분기 저조한 실적발표 후 연중 최저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완성차 업체들 역시 노사문제로 인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하지만 원화 강세와 중국발 모멘텀이 국내 내수기업의 주가를 자극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중국 정부의 경우 선별적인 통화정책과 미니 경기부양책 등을 통해 자국의 내수 경기활성화를 지속해 나감에 따라 관련 국내 내수기업들의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데다, 지속적인 중국인의 국내 인바운드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어 내수주의 모멘텀을 강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효과 또한 내수경기 부양에 초점이 맞춰짐에 따라 내수주들의 차별적인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종합해보면 이번 주는 앨런의장의 잭슨홀 연설이 월말을 맞이하는 국내 주식시장의 향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2050선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선물 매매 포지션에 따라 하루 지수 변동성을 크게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주후반으로 갈수록 코스피지수는 2050포인트에 안착하며 박스권 상단 돌파를 위한 버팀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조정시에는 적극적인 매수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최근 가시화 되고 있는 정부 정책 모멘텀과 중국 내수주의 부각 속에 생활용품, 음식료, 지주사 등 실적 개선세가 동반되는 종목군을 중심으로 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북지점장>

오피스텔 "매매"
동구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 77평-20층, 최상층, 전망좋음
★ 사무실 적합, 전체 올수리
시세/분양가-4억
매매-2억7천5백만원
■ 53평-13층, 코너, 전망좋음
전체 올수리, 주거겸/사무실 겸용
★ 시세/분양가-2억
매매-1억5천5백만원
■ 29평-11층, 2세대, 사무실 적합
하천방향, 즉시입주 가능
매매-6500만원
-일시불 파격 매매
회사 사정상 급매
문의.010-3605-5000

콘도/별장/펜션 가능
문의, 010-3605-5000
★ 전남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453번지
★ 아파트 개념
전기, 수도, 가스 개별
100m 온천수, 편백나무 시공
TV등 빌트인 시설 포함
★ 산속의 궁전
화개장터, 쌍계사, 섬진강 근접거리
★ 2층, 28평, 56평 각 1세대
★ 총 55세대 중 잔여세대
★ 28평 - 9000만원
56평 - 2억원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타 부동산과 교환가능

대자공인중개사
H.010-8572-8985 T.262-8985
■ 진주빌라 89㎡
북구 오치동 1층, 구조좋음
매매가 5950만원
■ 임야 36026㎡
담양군 창평면 외동리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2차선 포장도로 접
전면 85m 접
매매가 2억1800만원
수익성 있는 부동산 매입합니다.
★ 급매물 접수합니다

(주)오천경매
대표, 최 선 규 드림
문의, 010-3605-5000
광주 동구 천변우로 339, 2001호
"경매"에 관한 모든 것!
■ 특수 비법 배우실 분!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단독/공동 투자 가능
단, 상담후 본사 결정
■ 공동 투자 하실 분!
소유권 이전으로 보장
매매 할 때까지 책임 보장
■ 낙찰 물건에 투자 하실 분!
근저당으로 보장
월 10% 이상 이자 지급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정보 공유 등 집기 제공
연 사용료 1200만원
경매 직전 부동산! 매입/해결합니다.